

기독일보



“반갑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열린 세계감리교협 대의원회의에 세계 감리교 대표들 모여 손인사로 화답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6살 때 부모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촌형에게 강간당해 동성애 빠져”

트루스포럼, 탈 동
성애자 ‘데런 스키
너’ 간증 시간

14일,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확산되어가는 듯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가장 좋은 대답은 ‘체협’한 사람의 이야기다. 탈 동성애자 말이다. 제26회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최근 서울대 가운 홀에서, 탈 동성애자인 데런 스키너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데런 스키너는 간증에 앞서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 전서 13:1-10절을 봉독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6살 때 사촌 형으로부터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강간을 당했고, 그 때부터 동성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고 했다.

이후 그는 “20살에 군 입대 하면서 한국에 복무하러 왔었고 이태원 등지를 돌면서 동성애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가 이라크에 파병을 갔고 남자친구와의 진실된 사랑을 믿었기에, 자신도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하러 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동료의 죽음을 직면했고, 진실된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악 순환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육체적인 욕구에만 치중된 관계였고, 싸우고 성관계 맺고 상처주고 질투하고 서로에 무례히 행동하는 것을 반복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다”며 “이후 사귀는 동안 각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는 등 불신이 팽배했다”고 전하면서 그는 “당시에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라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

전역한 이후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 전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고향인 달라스에서 같이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전 남친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화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각자 원하는 방식만 서로에게 강요하고 관계에 타협이 없었으며, 서로가 많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관계에 불신이 많았다”며 “전 파트너에게 많은 잘못을 했기에 진심으로 그를 배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전 남자친구는 항상 나의 잘못을 질책하고 마음을 믿어주지 않아 많이 분노하고 싸웠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많이 싸웠기 때문에 데런 스키너는 당시 마리아나를 자주 피웠다고 한다. 그



데런 스키너(오른쪽)가 탈동성애 경험을 전하고 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

는 “전 남친과 싸우고 난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마리아나를 피우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다운이 되서 아내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다”고 고백했다. 휴연한 뒤 2시간 이후에 잠이 들어서 꿈은 환각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그는 “자신이 지옥에 있고 고문을 당하는 꿈을 꾸었다”며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당시 동거했던 남자친구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죽어 지옥에 같이 있는 광경을 보았고, 나의 여렸을 적 친구들도 함께 지옥에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끌려가는 공포를 맛보았다”고 전했다.

꿈을 꾸 이후 하나님께 기도한 그는 “성령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성애의 관계가 정말 나쁜 것이라면 이것을 저에게서 떠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기도를 한 이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는 남자친구의 심한 의심으로 인해 크게 싸웠고 이후 헤어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후 머리 속에 비늘과 안개가 걷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내 집과 삶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공공부를 하듯 열심히 성경공부를 했고 전 남자 파트너와 헤어 진지 4개월 만에 어느새 히브리 성경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Youtube에 올렸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아내이자 고등학교 때 동창인 자매가 자신의 동성애에 “데런은, 축하해 하나님께서 너를 통로로 사용하신 것에 감사해”라는 댓글을 쓴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댓글이 자신에게 굉장한 큰 의미를 지녔다며, 항상 뒤통수를 많이 맞아온 삶이었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 준다는 것이 큰

감동을 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에 함께 LGBT 활동을 했던 그룹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사랑을 말했지만 탈동성애를 택한 자신에게 배신자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에 함께 했던 동성애 친구들은 내게 크게 화냈다”며 당시의 실망감을 전했다.

한편으로 그는 “내 인생에서 택한 결정과 전환을 이야기 하러 (한국에) 온 것이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러 온 것은 아니”라며 “교만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로로 만든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탈 동성애 했기에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무너진 삶의 자리를 재건하는 데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 준 것은 지금의 아내 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내 과거를 다 아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어”라며 반문했지만, “그래 한번 만나보자”고 먼저 페이스북 메시지를 여자에게 보냈다”며 “연락이 하루 정도 안와서 심하게 자책하고 있다가 3분 만에 연락이 왔고 이후 그녀는 달라스에 없고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까지는 2달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 때의 상황을 얘기 했다.

이어 그는 “처음 만난 날 6시간 동안 긴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이후,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6번 정도 반복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얼굴이 가려진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 결혼식에서 남동생은 나를 끌어안고 ‘형이 너무 자랑스러워, 형 사랑해’라고 눈물 흘리는 광경을 보고 바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전했다. 이후 성령님께서 그에게 ‘자신에게 그 사람이 너의 아내 될 사람 이란다’라고 말하셨고, 그는 ‘말도 안 돼’라고 외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은 삼식적으로 말도 안 되

는 일을 행하신다”며 “어쩌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내에게 바로 청혼을 한다는게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 해보이지만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그 다음날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청혼 했는데, 아내도 ‘말도 안 돼’라고 말했지만 그 어감은 긍정적이었다”고 고백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의 아내는 “1년 전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고 1년 뒤에 내가 결혼하게 될 것이며, 너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녀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성령님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지금의 아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정의 기반을 쌓아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와 교제 동안에도 동성애에 많이 끌렸지만 아내는 내게 격려를 많이 해주었다”며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내가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녀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그녀를 통해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이후 그들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며 탈 동성애 사역을 하기 위한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끝으로 그는 “이후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고 전했다. “사랑은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사랑은 완벽하다”고 전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동성애자들이 피켓 등을 들고와 데런 스키너를 압박했다. 그러나 탈 동성애자 당사자의 생생한 간증에 그들의 행동은 별 의미없는 일로 녹아져 내리고 말았다.

노형구 기자

2018 세계감리교 대의원 회의 개최“예수님 안에서 ‘하나’되는 비전”

2018 세계감리교대의원 회의 개최예배가 13일 오전 8시 반 서울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예배는 세계감리교협회의 Gillian Kingston 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모든 대의원과 참석자들이 C. Wesley가 작사한 ‘만일이 내게 있으면’이란 찬송가와 ‘주여 주여 우리를(Kyrie eleison)’을 이어 부르며 예배를 준비했다.

특히 광림교회 성가대는 2018 세계감리교협회의 대의원 대회 주제가인 ‘분단의 십자가, 평화의 부활’을 불러 감리교 대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의 감명을 받았다.

이어서 세계감리교협회의 회장인 박종천 목사가 ‘이사야서 41:25-42:4, ‘마가복음 2:1-12’를 가지고 설교를 전했다. 그는 “성령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한반도에 전진이 종식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광야에서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길을 평탄케 해야 하는 사명을 지녔다”면서 “그곳이 바로 한반도의 하리에 있는 DMZ다”고 말해 전 세계 대의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나이가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며 “예배소서 2:14절에 ‘예수님은 친히 자기 육체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다’는 말씀처럼 제국은 분열은 가져다주지만, 예수님은 평화와 일치를 주시는 분이이다”고 전했다.

중학생 때 자신의 아버지가 중풍 병을 앓았던 자신의 얘기를 꺼낸 박종천 목사는 “마가복음 2:1-12절에 나온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데려갔다”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은 좋은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일제강점기, 소련과 미국의 냉전,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두 동강으로 나뉜 역사 속에서 그는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신호탄 이었다”며 “이사야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기뻐부름 받은 자로 칭하시고, 결국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끌었다”면서 “그러나 정작 고레스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것”이라 말한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그러나 우리가 고레스인 트럼프를 의지 한다면 한반도는 여전히 어둠속에 남아있을 테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단은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올 것”이라며 눈길을 끌었다. 그

는 “4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연단시키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마가복음 2장의 4명의 친구들은 ‘입술’ 혹은 ‘교양’으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며 “지붕을 뜯는 소란과 무례함을 감수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다”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4명의 친구들이 행한 신성한 방해와 소란이야말로 가장 창지적인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감리교도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 들은 하나님께 용감하게 죄를 고백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며 “너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야고보서 말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서로에게 적극 고백하고 용서받아 병 고침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적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 받았다”며 “이처럼 여기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적극 죄를 고백해 용서받고 치유 받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해 용서받고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 중국·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일본인들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는 분들이 아직 많다”며 “그들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기도부탁드립니다”면서 모든 설교를 마무리 지었다.

설교 이후 스코틀랜드 Sunday Starter 교회에서 온 Daug Swanney와 Janice Clark 씨가 대표 기도를 맡았다. 그들은 “장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의 망치가 있기를, 폭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해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비전을 품고 기도했다.

수석기도 있었다. 세계감리교 대의원회의는 김선도 목사에게 예루살렘 오더상을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는 “예루살렘 오더상을 받을 만큼 많은 일을 한 것은 아니다”며 “광림교회는 6.25전쟁 때 피난민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참석자들은 Margare Rizza가 작곡한 축복송(A Blessing)을 부르며 모든 예배 순서는 마무리 됐다. 이번 2018 세계감리교협회의 대의원회의는 13부터 15일까지 서울광림교회에서 진행된다.

노형구 기자

“동성애 옹호하는 NAP 폐지, 법무부장관은 사퇴를”

동반교연과 동반연 과천 정부청사 앞 집회
길원평 교수·염안섭 원장 삭발식 감행

12일 낮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함께 “위헌·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 및 기본계획 폐지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동반교연과 동반연 두 단체는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온갖 관계와 결합이 합법화 될 것”이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정책을 향후 5년간 정부 모든 부처에 실시하려는 법무부의 기만적이고, 반민주적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무부가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본계획은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으며,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

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들은 “사전과 교과서를 바꾸고,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성평등 이념을 심어주려고 계획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출산율을 더욱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일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고, “만약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신임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특정단체들과 18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법무부는 사과하고,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



삭발식을 감행하고 있는 염안섭 원장(왼쪽 앉은 이)과 길원평 교수.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과 집회 참석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동반연 제공

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단체들은 “동성애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되었는데,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반응성에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길원평 교수(부산대)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NAP 폐지와 법무부 항의의 의미로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나래 기자

‘역시나’…퀴어축제 관련 청원, 청와대 “어떻게 할 수 없다”

청원자 요청 핵심은 파악했지만
서울시에 공 넘긴 무책임한 답변

많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역시나’다. 서울시청광장 퀴어문화축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봤더니, 서울시장에 책임을 떠넘긴 채 “청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관련 현황을 전했다”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

13일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비서관은 동영상 답변을 통해 “행사 자체가 내일 하는 행사라 답변을 앞당겼다”고 밝힌 후, 청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별히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설적인 행사를 보고싶지 않다”는 청원자 요청 핵심을 비껴가지 않고 잘 파악했다. 그러나 정책비서관은 “사실 저희(청와대)가 서울광장 사용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청와대가 사용여부를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하게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서울시 측에 책임을 회피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서울시 측 입장을 남쪽했고, 다만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고 했다. 그는 “서울광장 사용여부는 청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관련 현황을 전했다”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

한편 청와대 답변에 대해 반응성에 활동가 한 사람은 “지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 지적하고, “청원인이 우려했던 ‘외설적인’ 행사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려왔던 2016, 2017, 2018년 계속해서 진행됐던 사항”이라며 “서울시나 경찰이 제재단속 등을 못한다면 청와대라도 나서서 책임 있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서울시민 82.9%가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 중 과다한 노출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77.0%가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67.0%가 서울시의 퀴어축제 서울 시청광장 사용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귀가 막힌 것이냐, 도대체 서울시와 이 나라 이 정부는 ‘소통’을 강조한다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1,500명 현장 교사 모여 ‘2018 기독교사대회’ 개최

“교육을 새롭게 하는 예수”라는 주제로

(사)좋은교사운동이 개최하는 2018 기독교사대회가 ‘교육을 새롭게 하는 예수’라는 주제로 1,500여명의 유·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다.

교육의 위기가 고조되던 199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기독교사대회는 대회 때마다 그 시대 문제의 핵심을 붙잡고 교육의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해 왔다. 올해는 11회 대회를 맞아 좋은교사운

동이 우리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해 애써온 교육실천의 결과들을 공유하며, 앞으로 달려가야 할 좋은교사의 길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을 새롭게 하는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전히 입시 경쟁 교육 아래에서 세계 최강의 학습량으로 아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곁에서 같이 힘들어 하며 고통 가운데 교직을 붙들고 있는 교사들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우리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감동의 이

야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한다.

주최 측은 “4일 동안 이어지는 배덕만 목사(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기독교교사가 일터인 학교에서 기독 정신을 흘려 보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이 21세기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선포할 예정”이라 전했다.

주제 강의 (1)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공동대표를 맡은 김정태 선생과 교사 팻캐스트 방송인 ‘샘샘샘’ 탐과 함께 ‘공감’이란 주제로 요즘 교사들의 실재와 아픔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학교현장에

서 좋은교사의 삶을 알아보고, 주제 강의 (2)에서는 공동대표 김영식 선생과 현직 교사 밴드 ‘꿈꾸는 교사들’과 함께 ‘동행’이란 주제로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달려가야 할 비전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듣는다.

한편 주제 강의 외에도 교사들의 성장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자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6개 영역 48개의 다양한 연수와 예비교사트레이 진행되고, 문화와 만남, 공동체와의 만남, 각 단체 부스 운영을 통해 지친 교사들에게 회복과 도전, 그리고 배움의 시간을 제공한다. 문의: 02-876-4078

조은식 기자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비서관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번 퀴어축제 관련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동영상 캡처

My KIDS

다문화 월드비전 헌신대사
봉어팻 자수

이름: Daum
주소: 케니

당신의 소중한 아이를
꼭 많은 애들로 감을
주십시오.

아름 24세 15%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검색엔 참여방법!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앱 mykids.www.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www.or.kr

월드비전

30일 후원금 모집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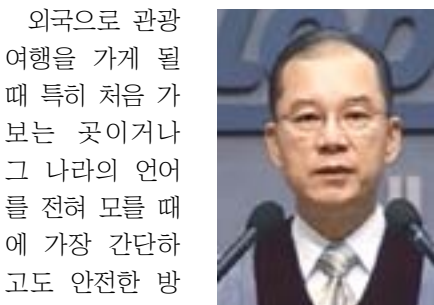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후원 링크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이동과 편지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이동을 사는 사물을 원한다면 후원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한 1회 후원금에 대한 보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안내

- 월드비전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보건, 교육, 교육 및 생활에 사용됩니다.
- 이후 후원금 한 마리의 보고서를 받아 감을 기부하고 한 마리의 후원금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외국으로 관광 여행을 가게 될 때 특히 처음 가 보는 곳이거나 그 나라의 언어를 전혀 모를 때에 가장 간단하고도 안전한 방법은 여행사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행 패키지'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현재의 '완전 가이드'입니다.

통상 도착지의 공항에서 그런 가이드를 만나게 되는데, 모든 여행객들은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그 뒤만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면 호텔에 도착해서 집을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리 계획되어 있던 관광코스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이드가 여행객에게 "지금 내가 그 여행사 본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중이라서 당신을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알아서 구경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던 여행객에게는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길을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찾아갈 방도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처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는데, 그로 인하여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등의 약속은 변함없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3절)라는 충격적인 변경사항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신다면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부터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조차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된 "준엄한 말씀"이

란 '불행한 소식'(evil news)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과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참담한 소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각자의 "장신구를 떼어내고"(6절)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하여 매일 같이 걸으며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7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8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과의 동행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회막"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만들기 이전의 '임시 성막'과 같은 것이었는데,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함으로써 '구별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시점에 그런 회막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교통하며 사는 자세를 새로이 익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회막'(tent of meeting)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소'라는 의미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그 회막으로 "나아가"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뵈고자 할 때면 스스로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장소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보면 특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갈 때"에는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 즉 자기 집 문 앞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으로 나아오고자 할 때 항상 경건한 예의를 갖추고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을 일깨워 줍니다.

10절에서는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회막에 강림하심이 나타날 때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당연히 그 앞에 머리 숙여 최고의 경외를 올릴 수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을 바라보며 회막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모든 생활을 오로지 '교회중심'으로 살아야 할 성도의 자세를 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럼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중심이 된 회막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곧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대면'이란 말은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에서 긴한 말씀을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까?

또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 못할 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통하여 모세와 것처럼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으며,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하시는 것' - 바로 이것이 회막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속 누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개혁신의 교회의 생활 강령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궁극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중심'의 삶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발이 걸여올 수 있는 교회에 나아가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가 그 마음과 뜻과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하는 생활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곧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곧 '성경 중심'이 되고,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만약 행선지가 틀린 비행기나 배에 오르게 되면 아무리 그 안에 잘 타고 있어도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상교회들 중에는 '실자에게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그저 현대인들의 '가려워하는 귀만 시원하게 살짝 긁어주는 카운슬링식의 설교'만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생명의 복음을 전례 주는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그 대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나 안내해 준다는 '유람선 교회'에 타고 있다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그대로 '지옥 직행'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몸담게 되었다는 사실은 보통 큰 은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예배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곧 여러분의 '평생 가이드'로서 동행해 주시려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있는 교회 중심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천당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인 것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12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

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17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라고 한 것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혼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로서는 참으로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행할 일을, 내일 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 주지 않으시면 모세는 당장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길이 없는, 즉 먼 장래 가나안 땅 정복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조차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며, 또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주의 백성" 즉 선민으로 "여겨" 주신다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동행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면 지금 아예 출발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었습니

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히 인도해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됨을 얻은 표식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 약속에 대하여 재차 다짐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끈질긴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라고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히 주셨습니다.

이미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또한 "이름으로도" 아실 정도로 가까운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도하심이 없어도 자기 앞날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갈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아도 그 저 자기 눈에 멀리 '가나안 땅'만 보이면 무조건 그곳만 바라보며 혼자 돌진하려 합니다.

저 앞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 인생에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만 하면, 어찌하든지 그 '젓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한시바빠 달려가서 내 인생의 행복을 붙잡고자 말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신자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 목표라는 것은 아예 추구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구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월간	
미주 기독교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혼자의 욕심만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이미 그 인생 방향이 청소년 때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아례’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몇 억’하고 목표에만 정해놓고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사는 사람은 결코 ‘만민 중에서 구별된 은총 받은 백성’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는 앞날이란 아무리 짓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이라 해도 아예 출발할 필요조차 없는, 노력할 가치조차 없는 무의미한 것인 줄로 알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두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직접 차를 몰고 출입해야 하는 미국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남녀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길을 가르쳐줄 때에는 악도를 그려주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확실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그림보다는 ‘몇 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디서 우회전을 하고 어떻게 생긴 건물이 보이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하는 식으로 말로 설명해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선호합니다.

하지만 남녀 누구에게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악도를 그려주고 거기에서 ‘설령’도 덧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는 ‘지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지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령’도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나하면 성경은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르쳐 주지만, 각 사람에게 그 처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면, 성경에서는 그 기도하는 성도가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야말로 ‘일대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배운다 할지라도 만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손에 악도는 들고 있어도 읽을 줄 모르는 ‘눈뜬장님’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실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메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자상하신 동행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18절 이하 23절에 기록하기를 “18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21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다가 23손을 거두리니 내가 네 등을 붙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참으로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 받은 그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같은 요청을 들으시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죄인 된 사람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직접 대한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땅 속에서만 살던 벌레가 햇빛에 노출되면 곧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지날 때에”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당신께서 완전히 “지나” 가실 때까지 그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 두심으로써 그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오직 당신의 “등”만 보도록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에게는 ‘육체’가 없으므로 이것은 아마 뒤에 남겨진 ‘영광의 잔상’ 같은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네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는 사실입니다.

즉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벌어지는 어떤 선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그 이름이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인 줄로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몸소 뵈옵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것”이란 어떤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윤리적인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수 없는 대신에 영적으로 그의 사랑, 자비, 선하심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 역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순간순간 사사건건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잠시 하나님의 “등”과 같은 ‘영광의 잔상’을 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는 명백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한 것도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실로 신앙인은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사람보다도 더 타깝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메시에에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체험하고 그때마다 ‘여호와와 이름을 떠올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여겼을 일, 그전에는 오로지 재수가 좋았다고만 판단했을 일들이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눈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선한 것’인 줄 깨닫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곁에 모시며 동행하는 삶을 마음껏 즐기는 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에는 물길이나 암초의 위치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장조차 배를 몰기가 위험합니다.

그럴 때에는 임항하기 전에 도선사(導船士)가 탑승하여서 선장 대신에 키를 직접 조정하면서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인도합니다. 선장이 그저 해도만을 보면서, 혹은 무선으로 안내만 받으면서 배를 모는 것보다는 아예 도선사가 몸소 동승해서 직접 인도해 주는 것이 백만 배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자 역시 하나님의 동행을 그렇게 체험해야 합니다.

그저 설교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도’만 보고 끝나는 것과 매일반입니다.

또 말씀을 받고 기도생활까지 했다 하더라도 만약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자세한 개인적인 ‘안내’까지 받고도 정작 배를 항구에 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는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귀한 언약을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맛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실제로 이런 복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지금 벌어진 일이 바로 내가 드렸던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이구나!’라고,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체험적인 재미’를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저 지도만 그려주거나 전화로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곁에 동승하셔서 그 방향타를 친히 붙잡아주고 계시는, 실로 든든하기 짝이 없는 ‘도선사(pilot)이신 것을 날마다 실제로 느끼고 맛봄으로써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전 인생의 최고 목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짓과 꼴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않으면 그리로 가는 광야행군이란 아무 기쁨이나 소망 없이 그저 피곤과 고생만 가득 찬 길이 될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걸어가려 하는 오늘의 인생길이나 내일의 목적지는 오로지 제 발로 걸어가는 멸망의 지름길이 될 뿐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좋은 곳에 놀러갈 때에도, 사실은 그 ‘좋은 곳’보다는 그 곳으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좋은 동행자’ 때문에 그 여행이 정말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같이 가게 되면 바로 그 때문에 그 마음은 풍다풍다 뛰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믿음직한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졸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내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것들은 다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외롭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항상 시행착오만 반복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아례’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하는 삶이란 설사 평생을 오락과 휴가만을 즐기며 산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는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 이 재미를 모르면 결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오는 하루와 내 미래의 앞길에 대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의 적시적지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 성호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실로 육안으로 친히 뵈는 것 이상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한 목소리로 철회 요청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현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 이하 인권계획)을 초안하고, 7월 중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정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12일, 각 언론에 발표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안석 목사

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공직자들이 중립적 입장이 아닌, 일부 NGO 단체들의 말을 듣고 인권계획을 초안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 평등(sex)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성 평등’은 생물학적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으로, 그 종류만 해도 50~70여 가지가 되며, 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자칫하면, 이런 일탈된 성에 대하여 모르고 비판할 때, ‘혐오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소위 인권을 보장한 ‘성 정치’(Sexual Politics)로, 인간의 성적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사회와 질서에 대하여 반대·대항하는 것으로 본다. 또 이런 풍조로 인하여, 음란과 방종이 표출되고 동성애 선전장이 된 ‘위아루제’가 벌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말라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병역을 거부하며, 소위 양심을 발미로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도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 되면, 군복무 단축으로 수만 명의 병력이 부족하게 되며, 거기에서 특정종교의 주장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질 경우, 젊은이들이 개종을 통한, 병력자원의 공백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난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군대에 입대할 연령의 19~29세 사이에서 21.1%가 그 종교로 개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이다. 지난 2013년에도 입법발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때에도 약법이며, 독소조항이 여러 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려는 ‘차별금지법’도 그에 못지않게 독소 조항과 역차별의 심각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무엇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사회의 대혼란이 예고된다. 이를테면,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할 경우, 사회적 불안 요인과 가정파괴, 흑세무민하는 세력의 종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비판?경계?저지하지 못하게 되며, 특히 여성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폐해도 막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동성혼 등 기존의 혼인제도와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킬 항목에 대하여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여 제도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난민법에 의한, 난민 문제도 정부가 난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데 뜻을 같이 한 교계 연합

기관으로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다.

또 시민단체와 교계 단체들로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교수연합, 미래목회포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애니선교회, 에스더기독운동본부, 자유와인권연구소, 청도교영성훈련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이다.

한편 최근에는 통일부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두고, 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참답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하여 축소하는 분위기이며,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국민 보호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북한 주민의 천부적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거창한 인권계획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권계획 속에 들어 있는 과도하거나,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은, 국민의 정서와 가정의 가치관에 맞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 보호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와 있는 32,000여명의 탈북이주민들이 북한인권의 열악함을 증거하고 있음이 아닌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 인권계획은 정권 주체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이를 지나치게 방종하도록, 인간의 한없는 욕구에 치중하다 보면, 바른 인권계획이 아니라,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는 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의 성명서에서의 요구와 주장처럼, 인권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폭 수정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이를 철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